


Doctor Q&A

독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은 최대한 성의껏 전문가에게 질문을 구하고 자료를 검색하여 답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아지에 알맞은 건초
 송아지에 양질의 건초급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품목이 좋을까요(입붙임용으로)? 그리고 언제부터 주는 것이 좋은지요.

고간류가 적고 녹색인 부드러운 건초면...

송아지는 생후 10~15일령부터 송아지용 사료와 건초와 함께 깨끗한 마실 물을 주어야 합니다. 이때부터 어미젖 이외의 사료에 관심을 보이기 때문이죠. 이때 이런 사료를 급여하지 않으면 바닥의 이물질이나 어미의 사료를 섭취하여 설사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건초는 품질이 좋은 건초이어야 합니다. 건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자 채취후의 고간류만 있는 건초도 있고 연한 녹색의 부드러운 건초도 있습니다. 이런 건초중에서 녹색이 남아있는 부드러운 티모시나 오차드그라스 또는 톨페스큐나 이탈리아인 라이그라스 등이 있는데 아무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고간류가 적고 녹색인 부드러운 건초면 무난하겠습니다.

답변자 : 축신연구소 한우시험장 장선식
전화 : 033-330-0615



야생초 급여에 관하여...
 야생초 급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물론 생초로 말입니다. 두과와 화분과 비율이 2:3정도 되고 육성우 비유우 합쳐(60두)700kg정도 먹습니다. TMR은 지식이 없어 볏짚과 혼합건초 연맥 사일리지를 급여하고 있습니다. 야생초 급여가 많은 사람들처럼 득보다 실이 많은지 정말 궁금합니다. 경제수명이 늘어 장기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사람도 있고 하여... 급여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A 지방의 황색화를 방지하기 위해 볏짚급여를...

문의하신 야생초가 산이나 하천에서 베어오는 산야초인지 목초종자를 밭에 파종하여 수확한 목초의 생초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물론 산야초보다 목초의 생초가 사료가치가 높습니다.

생초는 조사료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이지만 사육환경에 따라서 상황이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방목이 아니라 우사에 가둬놓고 생초를 급여하면 분변의 수분함량이 많아 우사바닥이 질어질 수가 있고 자주 치우지 않을 경우 소에게는 환경적인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번식우는 농후사료를 적게 주고 조사료를 많이 줘야하는 사양체계이므로 생초가 유리하며 생초의 엽록소에는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 있어 버즘예방과 번식효율 향상에 도움을 주지만, 비육우는 농후사료를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조사료로 생초보다는 볏짚이나 건초 또는 사일리지가 적절합니다. 그리고 비육우에게 사일리지나 생초를 줄 경우 비육말기인 22개월령 이후에는 지방의 황색화를 방지하기 위해 볏짚급여를 권장하는바입니다.

답변자 : 축신연구소 한우시험장 장선식
전화 : 033-330-0615



한우 암수 생산비율과 관련하여...
한우를 70두 사육하고 있습니다. 번식우 위주로 인공수정을 하고 있는데 송아지의 암수 구성이 1:9로 절대적으로 수송아지의 생산이 많습니다 적어도 5:5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경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있다면 그 예방책은 무엇인지?

A 조금 지나면 다시 성비가 회복...
◇ 가족개량사업소 성적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정리한 자료는 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도까지 조사한 바 질문자께서 말씀하시는 성비 5:5로 나타났습니다 년도별로 조금씩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어떤 다른 방법을 시도한 적은 없습니다

◇ 불행히도 귀 농장의 경우 특이하게 불균형적인 송아지 생산이 이루어져서 속상하시겠습니다


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연간 1,000두를 수정하고 800두 전후의 송아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기상으로 어느 해는 분만 초반에 암놈만포 어느 해는 수놈만 생산하다가 시기가 조금 지나면 다시 성비가 회복되곤 합니다

◇ 딱히 예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성감별 정액을 판매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 국내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수정 후 어떤 물질을 삽입하면 암놈 낳 확률이 높다고 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요즘같이 암놈이 비싸다고 성감별하여 송아지를 생산한다면 아님 수놈만 생산한다면 우리나라의 한우산업 장래가 어찌 될까요? 심히 우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자 : 농협중앙회 가족개량사업소 김덕임
전화 : 041-661-4682(교)180




3산정도 어미소가 검은 설사를...
3산정도한 어미소인데 처음 낳때부터 키워는데 1달 전부터 검은색 설사를 하는데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검은색 설사를 한다는 것은 소장이나 위장내에서의 출혈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사제를 먹여주시고 배합사료급여는 1/5이하로 양을 줄여주시고 양질의 조사료를 급여해주세요. 특히 곱팡이 핀 건초는 급여를 절대적으로 피해주세요. 항생제주사도 같이 해주시되 3~5일간 집중적으로 해주시는 것



이 좋겠습니다. 항생제주사는 일단은 설파제로 투여해주시고 (5일간) 반응이 없으면 바이트릴 같은 퀴놀린계항생제를 투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농업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 임연수
전화 : 041-661-4681



제각에 관해서...
강원도 화천소재의 한 농장을 견학한 후 궁금한내용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제각의 경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하며 특히 다두 사육에서는 더욱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견학가서 그곳의 한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제각을 하게 되면 뽕의 칼슘과 인의 저장 능력이 없어지므로 비육의 경우는 뇨 결석의 발생이 많아지고 암소의 경우도 분만을 하면 뽕에서 칼슘과 인이 빠져나가면서 테가 만들어진 다면서 뽕이 없으면 칼슘과 인이 부족해진다고 하면서 제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친환경 유기농 축산에 있어서도 제각은 동물 복지적인 측면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들어 보니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의문이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A 제각은 송아지때 연고만 발라주면 쉽게...

제각에 대해 흥미가 많으신가 봅니다. 실습 나가신 농장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소를 키우신 경험이 많으신 사장님이십니다.

뽕을 소의 칼슘과 인의 저장소로 보시는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소의 뽕은 칼슘이 주성분이 아니라 케라틴 단백질입니다.

소의 발굽이나 털과 같은 형태의 분해가 잘 되지 않는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뽕이 안쪽에는 피가 통하는 수질이 있어 이는 손톱의 뿌리와 비슷하여 뽕을 성장시켜줍니다. 만약 칼슘이나 인의 대사에 주로 관여하는 것은 뼈이지 뽕이 한다는 건 아무리 긍정적으로 이해하려해도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수소나 거세우 또는 암소의 뽕은 우선 보기에는 좋지만 일종의 무기로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힘없고 체구가 작은 사람이라도 칼이나 총을 지니고 있다면 누구도 선뜻 다가서기가 두렵습니다.

소에서는 대부분 체구가 크고 영양상태가 좋은 놈이 뽕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무리생활을 하면서 사료를 먹을 때 한번 이놈이 휘두르면 다른 놈들은 무서워 범접을 못하고 사료를 제대로 못 먹죠.

이러면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 제한사양을 하더라도 많이 먹은 힘세고 뽕이 큰놈은 자유채식한 것이나 다름없게 되어 육질이 나빠집니다.

또 암소도 마찬가지로 농후사료를 적게 먹고 조사료위주로 키워야 되는데 힘세고 뽕이 큰 놈이 다 먹게 되면 역시 과비가 되어 송아지를 제때에 못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정해서 뽕의 뾰족한 부분을 잘라내고 피가 나면 불에 달군 인두로 지져 지혈을 하고 멍뚱하게 다듬어주면 공격적인 성향이 무뎌집니다.


또 암소는 뽕이 있으면 발정이 낮을 경우 성질이 예민해져 주위 소를 들이박아 임신우의 경우 유산을 하거나 몸에 상처를 입어 수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도 종종 일어납니다.

뿔이 없으면 요석증이 걸리기 쉽다는 말도 납득하기 어려운데 이는 농후사료 과다급여시 칼슘과 인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발생하지 뿔하고는 상관없이 없습니다. 이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염화 암모늄을 두당 20g을 한 달에 4일간 연속으로 15개월령부터 주고 증상이 심할 경우 일주일에서 한 달정도 주면 증상이 완화됩니다.

또한 뿔이 있으면 유기한우로 인정받기 어렵다는데 아직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소의 경우 거세도 하지 말아야죠. 제각은 송아지때 연고만 발라주면 쉽게 되므로 동물의 복지를 해친다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를 오랫동안 키우면 모두 박사수준 이상이 되십니다. 그렇지만 이론적인 배경이 없을 경우 괜한 고집이 됩니다. 고객님도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축산연구소 한우시험장 장선식
전화 : 033-330-0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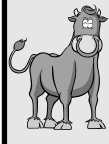


부제병에 대하여...
한우 암소가 있는데 발굽 위에 있는 곳이 부어서 소가 아파했습니다. 전에도 이런 소가 있어서 항생제하고 해열제 놓아서 치료가 되어서 이번 소도 그렇게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치료기간이 꺾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가 병이 제발 하지는 않는지요. 왜 이런 질병이 걸리는 겁니까? 옛날에는 젖소에서 발생한다던데요?

A 우사바닥은 자주 청소를 해주고 가능한 건조해야...
한우도 젖소처럼 빈번하지는 않지만 발굽질병을 앓곤 합니다. 발굽이 우사바닥이

나 철사 등에 의해서 상처를 입으면 상처로 병원균이 침입하여 염증이 생기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우사여건은 분변오염물이 산재해있어서 상처가 있으면 쉽게 감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사바닥은 자주 청소를 해주고 가능한 건조해야 발굽질병이 없습니다. 발굽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선 발굽삭제를 1년에 한번씩 해주고 유산동(황산구리액) 5~10%액에 발굽을 수시로 담가주면 됩니다. 감염 부위는 적극적으로 도려내고 소독을 해주어야 합니다.

답변자 :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 임연수
전화 : 041-661-4681



비육시 증체량과 관련하여...
우사형태는 군사식으로 비육우와 번식우를 같이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비육우가 번식우로 인하여(발정) 증체량에 영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암소의 발정으로 인하여 증체에...
우선 질문하신 내용상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비육우(수소거세인지 아니면 암소인지)와 번식우의 동일우사 사양관리는 부적절합니다. 비육우 사양관리, 번식우 관리는 별도로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일반적으로 비육우 관리 프로그램은 사료회사 혹은 지역 축협 등과 협의하시어 고급육도 만들고 증체도 잘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 당연히 암소의 발정으로 인하여 증체에 미치는 영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무발정우를 만드



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소의 경우 거세를 하는 이유도 그중 하나
 구요, 수소 거세우라 합사된 우사의 암소 발정에
 따라 승가가 일부 허용되어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도 있으며 거세하지 않은 수소도 호르몬 처리
 된 사료를 급여하여 무발정 상태가 되도록 하
 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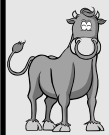
암소의 난소를 절제한다든지, 호르몬이 포함
 된 사료(프로제스테론)를 일정량 급여하는 방
 법으로 증체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 번식우의 경우 자유로운 조사료 채식이 가
 능하도록 하시고 일정량의 농후사료(3kg/일 내외)
 를 급여하여 과도한 비육이나 영양과부족이 발생
 되지 않도록 사양관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따라서 비육우와 번식우의 구분 사양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고 가능하시면 임신군과 미임
 신군으로 구분하여 사양관리를 유도해 보세요.

최근 일괄사육이란 이름으로 혼동의 여지가
 있으신 것은 아닌지요?

답변자 :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 김덕임
 전 화 : 041-661-4682 교)180



질탈에 대하여...

분만이 가까워지자 어미소 음부쪽에 동
 그란 풍선같은 것이 보이더군요. 이게 밀
 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일컫는 말인지
 요. 작년에도 이랬고 올해도 이랬는데 어떻게 해
 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수정사가 하는 말이 밀이
 좋지 않다고 비육을 하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해
 야하는지요. 제가 듣기로는 밀이 빠진 소도 있
 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현상은 또 왜 생기는지요. 이
 런 게 유전도 되나요.



다음 임신기에도 반드시 재발하는
 경향이 있기에...

보통 분만말기에 새끼가 커지고 요
 수와 양수의 증가로 인해 복압이 많이 올라갑니
 다. 즉 어미소 복강의 내압이 자궁이 커짐에 따
 라 올라가는 것이죠. 이 시기엔 에스트로겐의 분
 비량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골반인대가 이완됩
 니다. 그러기 때문에 질내벽이 외부로 풍선처럼
 밀려나오게 되지요. 이런 소는 다음 임신기에도
 반드시 재발하는 경향이 있기에 경제적 가치가
 떨어집니다. 어느 정도의 유전력도 인정이 됩니
 다. 그러나 1~2산차를 통해 확인해보면 질탈이
 자주 일어나는 경향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질
 탈이 자주 일어나는 소는 도태하는 것이 경제적
 입니다. 치료는 수의사를 불러서 음문봉합술을
 실시해줍니다. 일시적으로 꽤 때어 놓았다가 분
 만시엔 끌려주는 것이죠. 출산 후에는 복압이 다
 시 감소하므로 질탈증상은 소실됩니다. 그러나
 다음 임신기에 다시 재발합니다.

답변자 :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 임연수
 전 화 : 041-661-4681

※ 위 내용은 축산연구소(<http://www.nlri.go.kr>) 및 농협중앙
 회 가축개량사업소(<http://www.limc.co.kr>)에서 발췌한 내용
 으로 한우농기에서 경영과 사양관리 함에 있어서 유익한 정
 보가 되길 바랍니다.